

26. 제주성(城) 공략(攻略)의 교두보(橋頭堡) 황수왓⁵⁰⁾

- ◎ 이재수(李在守)가 난군(亂軍)을 지휘하던 ‘장두머르’
- ◎ 한말(韓末)에는 비밀리(秘密裡)에 의병(義兵)이 훈련 받던 곳

지금 황수왓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주시내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밭과 솔나무 밭이 있었던 곳. 지금도 감귤원을 비롯하여 많은 농원이 있는 곳으로 생각할 사람이 많을 것 같다.

또 천주교(天主教) 묘지(墓地)를 비롯하여 많은 묘지가 있는 곳을 떠올릴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황수왓의 내력을 알고 다른 의미로 떠올릴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50) 『한라일보』 제154호 (1989. 10. 21).



‘장두머리’에서 내려다 본 황수왓[황사평(黃蛇坪)] 일대 | 이곳은 금세기(今世紀) 초 천주교란(天主敎亂)이 일어났을 때 서진대장(西陣大將) 이재수(李在守)가 진두지휘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만병(萬兵)을 수용할 만하여

황수왓을 ‘황소왓’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자 표기로는 ‘황사평(黃蛇坪)’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등] 또는 ‘황사평(黃沙坪)’ [『한국지명총람』 등]으로 하고 있는데 그 유래에 있어서도 여러 설이 있어 한마디로 속단이 어렵다.

『증보탐라지』에는 황사평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주읍 화북리(禾北里) 위 지경으로 옛날에 군사를 교련하던 곳이다. 사면이 광활하여 만병(萬兵)을 충분히 수용할 만하고 평탄한 지역인데 지금은 민유(民有)로 되어 있다. 옛날의 장대(將埜)가 어렴풋이 남

아 있다.”

이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이곳은 평탄하게 넓은 지역으로 원래 군사를 훈련하던 곳이며 장대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제주영(濟州營)에는 원래 군사를 조련하는 곳으로 관덕정(觀德亭)과 함께 연무정(演武亭)이 있었는데 조선후기에는 주로 이 연무정에서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무정은 처음(1636년)에 목사 신경호(申景號)가 제주성 남쪽 광양(廣壤)에 건설하였으나 태풍으로 파괴되자 1746년(영조 22) 목사 한억증(韓億增)이 동문 밖(동초등학교 자리)에 옮겨 세웠다.

광양이나 동문 밖은 모두 황수왓으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볼 수 있다. 소규모의 기초훈련은 연무정 뜰에서 실시되었겠지만 야전훈련은 이 황수왓을 이용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1908년 기우는 국운을 회복하려고 의병(義兵) 궤기를 기도했을 때 일경(日警)의 눈을 피하여 의병훈련을 실시했던 곳도 바로 이 황수왓이었다.

동서로 무장군중(武裝群衆) 집결

이때 제주의 선비 김석윤(金錫允)은 고사훈(高仕訓), 노상옥(盧尙玉) 등과 협의하고 전라도 장성(長城)의 의병장 기우만(奇宇萬), 기삼연(奇參衍) 등과 연락을 하면서 비밀리에 의병봉기를 추진하였다. 그들은 도내 여러 곳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이 황수왓에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광양에 대장간을 차려 무기를 제조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이듬해인 1909년 2월 대정 서광리(西廣里)에서

창의격문(倡義檄文)을 돌리고 의병을 모집하던 고사훈과 김만석(金萬石)이 일경에게 발각되어 살해되었다. 다행히 노상옥은 도외로 탈출할 수 있었으나 김석윤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의병봉기는 도중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조선시대 말엽에 제주도에서는 여러 차례의 민란(民亂)이 일어났다. 그때마다 황수왓이 들먹여지곤 했다. 그것은 대부분의 난군이 이곳을 제주성 공략의 교두보(橋頭堡)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성 둘레에는 서·남쪽으로도 정드르[장평(長坪)] 광양 등 넓은 지역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는 차폐물이 없어 노출되기 때문에 군사 행동에는 불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반대로 동남쪽에 있는 새넛 것과 황수왓 일대는 언덕과 송림이 우거져 적으로부터 행동을 보호하는데 유리했다.

여러 민란 가운데서도 난군의 본거지로 역사의 현장이 되었던 것은 천주교란(天主教亂) 때의 일로 생각된다.

1901년(광무 5) 5월 15일 천주교란이 일어나자 대정(大靜)에서 쫓겨난 난군은 동·서 양군으로 진용을 편성하였다. 동진(東陣)은 강우백(姜愚伯)⁵¹⁾이 대장이 되어 동진(東進), 정의(旌義)를 거쳐 황수왓에 집결하기로 하고 서진(西陣)은 이재수(李在守)가 대장이 되어 명월(明月)을 거쳐 황수왓에 집결하기로 하였다. 황수왓에는 5월 16일 서진이 한발 먼저 도착했고 다음날에는 동진도 도착하였다.

이들은 난군의 본진을 황수왓에 두고 용연(龍淵)에서부터 오라리(吾羅里)에 이르는 한넛가와 광양에서 고으니머르에 이르기까지 제주성을 동

51) 신문에는 '강우백(姜愚伯)'이라 되어 있다. '강우백(姜遇伯)'으로 바로 잡음.



! 현재의 장두머르(제주시 화북동) 서남방향 ! 바로 앞으로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섰으며, 그 너머 멀리 이도지구 베라체 아파트단지가 보인다.

남서 3면에서 포위하였다. 이때부터 5월 28일 난군이 제주성에 입성할 때까지 황수왓은 13일 동안에 걸쳐 민란을 지휘하는 총본영이 되었다.

제주성 주변에서는 연일 총격전이 벌어지고 사상자들이 발생하였다. 당시 제주군수 김창수(金昌洙)는 양쪽의 평화협상을 중재하였다. 신부와 교섭하여 성당에 감금되어 있던 장두(狀頭)⁵²⁾ 오대현(吳大鉉)을 석방시키고 정전을 교섭하였지만 이재수는 이를 거부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오대현을 동진대장으로 삼아 진용을 보강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성내에서는 난군의 포위로 식량과 시탄(柴炭)이 떨어지고 쫓겨를 촉구하는 통문과 함께 총성이 그치지 않아 주민은 공포에 싸여 있었다. 마침내 부녀자들이 중심이 된 군중봉기가 일어났다.

민중은 성상에 설치했던 교도들의 총포를 모두 철거하고 3대 성문을 열어 쫓겨 민란군의 평화적 입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52) 신문에는 '장두(壯頭)'라 되어 있다. '장두(狀頭)'로 바로 잡음.



| 현재의 장두머르(제주시 화북동) 서북방향 | 오른쪽 멀리 사라봉과 별도봉이 한 눈에 들어온다.

잊혀져버린 전적지(戰蹟地)

며칠 전 필자는 그날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며 황수왓 일대를 돌아 보았다. 이재수가 진두지휘했다는 ‘장두머르’에 올랐다. 황사교(黃沙橋)에서 동남쪽으로 약 2백m 남짓 거리에 있는 이곳은 이 일대에서는 가장 높은 동산이었다.

여기에 서면 넓은 들이 눈 아래 전개되고 멀리 사라봉과 별도봉 너머로 수평선이 내려다 보였다. 지금은 곳곳마다 수림이 우거져 시야를 가리지만 옛날에는 그 넓은 들이 한눈에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군사훈련 때 지휘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장대’가 서북쪽으로 보였고 부록동(富祿洞)과 절샘거리를 거쳐 화북동과 삼양동까지 내다볼 수 있었다.

필자가 서 있는 동안에도 서쪽으로 나있는 도로에는 버스와 차량,

사람들이 툼툼이 오가고 있었다. 누가 이 동산을 그 끄적했던 천주교
란의 현장이요, 이재수가 지휘하던 장두머리로 생각하고 있을까.